

애들과 함께 전원생활 오랜 꿈 고흥서 이뤘네요

강만숙씨 농산어촌 유학 생활 9개월
두 자녀와 서울서 내려와 입주
유학생 10명 임대형 주택 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생활 만족

“애들과 함께 전원생활의 꿈을 고흥에서 이루게 됐어요. 초·중학생 모두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이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가족 모두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 두 자녀와 서울에서 내려와 처음 문을 연 고흥군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강만숙씨가 9개월간의 고흥 생활에 매우 흡족해 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가족 단위의 체류형 유학생을 영입하기 위해 남양면 남양초 인근에 조성한 공공 임대형 주택으로 지난해 8월 6동이 문을 열었다. 도시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흥에 체류하며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농산어촌 정착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고 있다.

강 씨는 “주택에 기본적인 가전기구와 가구



고흥군 농산어촌 유학마을사업에 따라 타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남양초에서 체험형 수업을 하고 있다.

완비되어 있고, 새로 지어져 깨끗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어 좋다”면서 “다른 지역도 알아봤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 모두 만족할 만한 여건은 고흥이 최적이었다”고 밝혔다.

강 씨 가족이 또 이곳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그는 “무엇보다 학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많고, 방과후 수

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큰 부담이 없다”면서 “또 학생 수도 적당해 애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생활 계획에 대해서 그는 “우선 중학교 2년생인 큰 아이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있을 계

획이며,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싶다면 더 무를 수도 있다”며 장기 체류 가능성도 비쳤다.

강 씨 가족처럼 고흥의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입주해 있는 유학생은 10명이며, 함께 온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이다. 이들 학생은 남양초(5명), 영남초(2명), 남양중(2명), 포두중(1명)에 나뉘어 다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학마을 사업이 폐교 위기의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 효과도 특목히 거두고 있다.

군의 유학마을 사업 추진에 따라 학생 수가 늘어나 기존에 없었던 교감선생님도 새로 오게돼 학사 운영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또 군은 지난 3월 유학생 학부모와 마을 주민이 함께 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과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서 고흥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내년까지 유학생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2동을 남양면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 씨는 “서울에서 고흥까지 거리가 멀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가족 모두 내려와 생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고흥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개장 25주년 기념 나눔행사

1000만원 상당 농산물 기부



순천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 25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사랑나눔 행사로 1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기부했다. <사진>

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순천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협회와 법인, 공판장 그리고 유통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25주년 행사는 나눔과 감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행사의 규모보다는 나눔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과 도매시장에 신선한 농산물을 출하해 주는 출하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뒀다.

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협회와 법인 및 공판장 등 100여 명의 유통관계자들은 실시일만 모은 기부금으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2곳에 기부했으며, 실시일만 모은 기부물품의 규모는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도매시장의 본질인 농산물 소비를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을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선다는 취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22억원 들여 미래인재육성

교육복지·학력증진 주력

보성군은 올해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교육복지 실현 9개 사업에 11억9000만원, 특기 적성 지원 3개 사업에 2억4000만원, 학력 증진 지원 5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을 관내 초·중·고교 및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전 세대 학생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통학 여건이 어려운 초·중학생을 위한 택시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및 주말 토요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개발과 학력 신장 지원으로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은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해 겸백면·문덕면에 4동씩 조립식 주택 8동을 신축하고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을 유치해 젊은층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올해도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유학 경비 지원 등을 강화해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내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청소년 진로 체험 활동 확대 ▲영어 체험 교실과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6개 고등학교에는 각 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계고 3개교에는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올해 상·하반기에 총 730여명에게 5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24년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교 진학률이 2020년 7.6%에서 2025년 30.2%로 상승했으며, 보성군의 교육 혁신 효과를 전국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혁신 어벤져스 2기’가 출범했다.

곡성군 행정혁신 이끌 ‘어벤져스 2기’ 발대식

19명, 군 정책과제 발굴·실행

곡성군이 지난 17일 군청 대동마루에서 ‘2025년 곡성군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첫 출범에 이어 두 번째인 ‘혁신 어벤져스 2기’는 곡성군의 미래 발전과 행정 8혁신을 이끌어갈 곡성군청 공직자들의 자율적 혁신 모임이다.

이번 2기에는 총 19명이 선발되어 농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주민 복지 및 서비스 향상,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 5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과제 발굴과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 소개와 팀별 비전 선포식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곡성군의 미래를 위한 혁신 의지를 다지며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혁신 어벤져스는 곡성군의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2기 참가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은 향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군정 혁신에 한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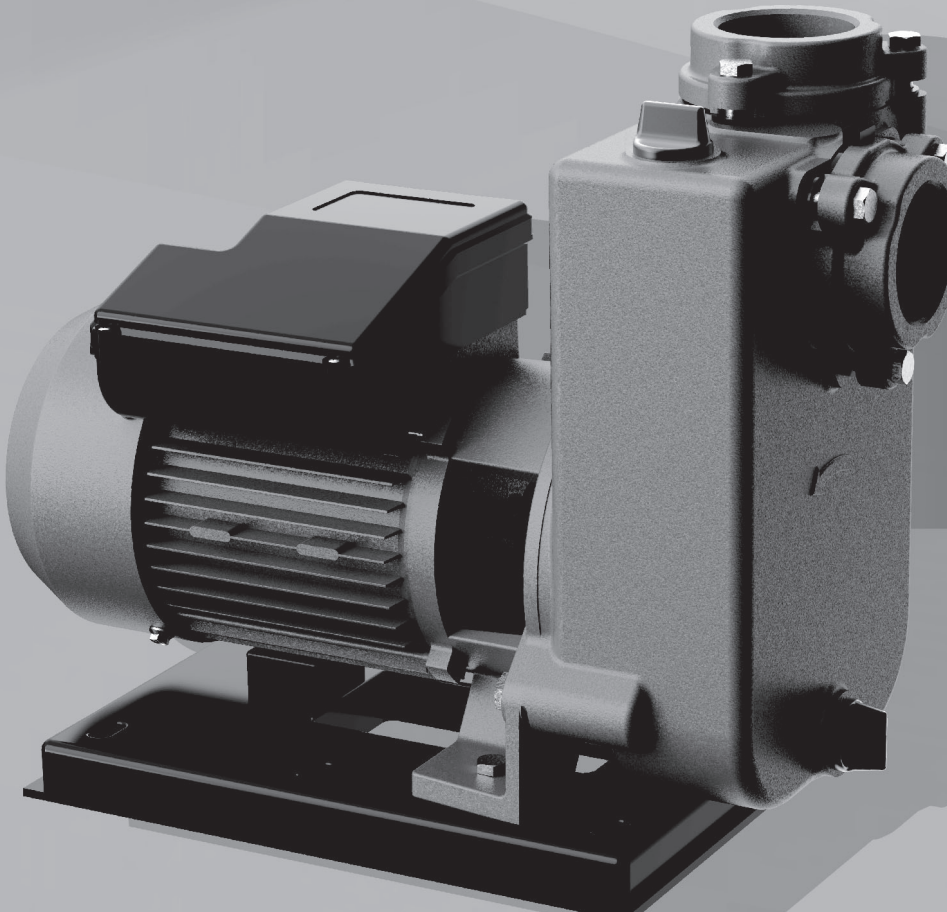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광양시가 오는 25일과 내달 9일 지역 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광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 수립된다.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광양시는 사전에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성장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 및 기준 설정,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